

한·사우디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압둘 라흐만 알 라쉬드 상의연합회 회장, 압둘 라흐만 알 안카리 경험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선동 경험위원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경제협력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이 서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원유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중국, 일본, 미국 다음입니다. 또 중동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세계 1위의 산유국에 머물지 않고 산업구조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우디를 주목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두 가지 점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원유의 1/3을 이곳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75억 달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우디가 OPEC의 중심국으로서 국제 유가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원유 공동 비축 등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협력이 보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도움은 건설협력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한국경제가 오일쇼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마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업에 건설시장을 열어 준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974년 쟁다시의 미화공사를 맡았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햇불을 밝히고 일하는 것을 보고 파이잘 국왕께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공사를 더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또 20세기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주베일항만 공사 당시에 한국에서 철골 구조물을 조립한 다음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기상천외한 시도에 대해 아낌없는 신뢰와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성실함과 도전정신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과 석유화학, 발전, 철도공사 등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과 경험을 함께 나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개최된 '한·중동 플랜트 심포지엄' 과 수출보험협력 약정 체결 등을 계기로 건설과 플랜트 분야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저는 국왕자문회의를 방문했습니

다. 그리고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과 GCC 간 자유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동의 인적 자원개발 지원, 문화교류 증진, 한·중동 협력포럼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는 압둘라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고등교육협력약정에 서명했습니다. 관계 장관과 기관들 사이에도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공식을 갖는 LG전자의 에어컨 공장도 비석유화학 분야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산업협력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나라 간 협력을 이제 한 차원 더 끌어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와 건설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제조업과 정보통신·문화·인적교류·발전경험 공유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와이브로와 DMB 기술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꼭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국토가 넓고 국가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우디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한국에 대한 투자도 권해 드립니다. 한국에는 우수한 인력과 첨단 과학기술, 넓은 소비자층,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회와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곳 국비 유학생이 올해 80여 명을 시작으로 500명 수준까지 한국 대학을 찾을 예정이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아랍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만큼 사우디와 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으십시오. 더 새로운 방식, 더 긴밀한 협력으로 윈-윈 할 수 있

는 길을 찾으십시오. 법과 제도가 달라 부딪히는 어려움은 양국 정부가 열심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방문이 두 나라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슈크란 좌질란(대단히 감사합니다).”